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2017년 2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7(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7. 2. 7.(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원주 과장 (044-203-4320)	담 당 자	임채욱 서기관(044-203-4327) 김기열 사무관(044-203-4322)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관 손잡고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 모색"

- 최초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공식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는 2. 7. (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부는 물론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다기한 이슈와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협의·조정하는 역할 수행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16. 2. 7(화) 12:00 ~ 13:30, 플라자 호텔(서울)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産) 완성차 5사 대표(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차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學) 전광민 연세대 교수, 김수욱 서울대 교수 (硏)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김병수 자동차부품연구원장,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장
- 주요내용 :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아젠다 제안 발표(산업연구원장) 후 토론

□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 불확실한 통상 여건 등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자동차산업이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 특히, 우리 자동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동차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지휘체계(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자동차 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정책 조정 기구인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주장관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 자동차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으로 보급**되는 대**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 업계에서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향상 등을 위해 투자를 지속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17년도 완성차 5개사는 미래차 분야에 약 4.7조 원의 투자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현재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력업체-정부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2,500여개)으로 확대하고,

○ 올해만 자율차 센서 등에 약 1,100억 원의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차 분야 400여명의 융합형 인재도 양성하기로 했다.

○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연구개발(R&D)프로젝트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주 장관은 자동차산업의 품목·주체·시장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대한(對韓)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잘 설명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 효과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현대·기아차는 6,700여명, 63개 부품업체는 약 2만5천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

○ 이와 함께, **환경·안전 규제정책을**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사제도의 선진화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 1차 회의에서는 첫 이정표로서 산업연구원에서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안했다.**

○ 7대 정책 아젠다에는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등이 포함했다. (※ 세부 아젠다 내용은 붙임3 참조)

□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끝으로, 주장관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민관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요**
<붙임 2> **참석자 명단**
<붙임 3> **7대 정책 아젠다**
<붙임 4>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기열 사무관(☎ 044-203-43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요**

□ 추진배경

○ 미래차 시장 선점 경쟁 등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총력 대응**이 필요

○ 특히, **기술경쟁의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환경·안전 규제, 노사 문제 등** 복잡 다기한 이슈에 대응한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급**

⇒ **국가적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합동의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여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기틀 마련** 추진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7.2.7일(화) 12:00 ~ 13:30,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産) 완성차 5사 대표, 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學) 원로급 교수 2人 (硏) 산업연구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 **주요 논의사항** : 자동차산업 미래 생존전략으로서 **핵심 정책 아젠다** 제안 발표(산업연구원) 후 토론 진행

□ 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2:00-12:05	(5')	▪ 참석자 소개	
12:05-12:10	(5')	▪ 인사말씀	장관님
12:10-12:20	('10)	▪ (발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아젠다 제안	산업연구원
12:20-13:30	('70)	▪ 자유토론	참석자

※ 기자단에는 인사말씀까지 공개

붙임2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약력	비고
자동차 업계 (5)	 정진행	○ 현대자동차(주) 사장 ○ 前)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본부장	
	 박한우	○ 기아자동차(주) 사장 ○ 前)현대자동차 인도법인장(부사장)	
	 제임스김	○ 한국지엠(주) 사장 ○ 前)한국지엠 최고운영책임자(COO)	
	 박동훈	○ 르노삼성자동차(주) 사장 ○ 前) 르노삼성자동차 영업본부 본부장, 부사장	
	 최종식	○ 쌍용자동차(주) 사장 ○ 前) 쌍용자동차 영업부문장 부사장	
협회 단체 (2)	 김용근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신달석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 DMC 대표이사	
연구계 (3)	 유병규	○ 산업연구원장 ○ 前)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병수	○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 前) 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연구본부장	
	 박청원	○ 전자부품연구원장 ○ 前)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학계 (2)	 전광민	○ 연세대 기계공학부 교수 ○ 前) 한국 자동차공학회장	
	 김수욱	○ 서울대 경영대 교수 ○ 한국 자동차산업학회 회장	

붙임3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아젠다

< 7 대 정책 아젠다 >

정책과제	기본방향
① 미래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 모델 다양화,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차 시장 확산 . 친환경차 성능개선, 자율 주행차 핵심 부품/SW 국산화 등 핵심융합기술 확보 . 미래차 국제표준.플랫폼 선제적 대응
②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과 융합 촉진	. 미래차 핵심부품 생태계 확충 및 기존 부품 기업의 업종 다각화 . 스마트공장 확산,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 확대 등 생산의 스마트화 . 융합 얼라이언스 강화,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 융합 기반 확대
③ 자동차 연관 서비스 신산업 창출	. 서비스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해소 .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확산 및 실증사업 확대
④ 수출 구조 혁신과 통상정책의 전략적 활용	. 자동차산업의 수출 품목.주체.시장 등 수출구조 혁신 강화 . 수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FTA체결,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⑤ 산업발전과 환경.안전 규제의 조화	. 자율주행차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 규제의 선제적 정비 . 규제 도입시 기술발전 속도,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절차 마련
⑥ 국제 수준에 부합한 노사관계 정립	. 각계가 참여하는 노사관계 연구회 운영 및 법제도 개선안 도출 . 노사 양측의 공감대 형성 및 자율적 협력문화 정착
⑦ 자동차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산하 실무 분과 운영

붙임4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4년만에 처음으로
월 단위로 두 자릿수(+11.2%)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한 저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는 자동차 산업 >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동차산업은 좀처럼 수출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생산(15년 대비 -7.3%, 423만대)과 수출(15년 대비 - 11.8%, 262만대)이
각각 5위에서 6위로, 3위에서 4위로 한 단계 하락하였으며,

지난 1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판매대수 기준 10.1% 감소(금액 기준 -4.8%) 하였습니다.

그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근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급부상한 미래차 시장을 놓고
국가간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중국, 인도 등 후발주자의 추격과 연례적인 노사간 극한 대립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 출범 의의 >

우리 자동차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민관이 혼연일체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오늘 민관 합동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복잡다기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 자동차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

금번 1차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자동차 경쟁력 강화, 부품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적인 통상정책 등
7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제시된 7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 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과 20만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인센티브, 충전인프라 등 3대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전기차가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누적 1만기의 충전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2만기로 두 배 늘리고,
구매·운행·보유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겠습니다.

업계도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과 성능향상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년도 완성차 5개사는 미래차 분야에 약 4.7조원의 투자 예정

둘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을 자동차산업 전반에 접목하여
생산시스템을 혁신하고 연관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부품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800여개 부품기업에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기업-협력업체-정부간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3배 이상 수준(2,500여개)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에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에 약 1,100억원의 R&D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자동차 분야 융합형 인재 400여명도 양성하겠습니다.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 얼라이언스에서 도출된 공동 R&D 프로젝트를
금년에 본격 추진하고,
업체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국, 중동, EU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된 시장을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품목·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FTA 체결,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 등
수출을 견인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의 對韓 수출 증가(연평균 35.5%)와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잘 설명하여
한-미 FAT 효과에 대한 미측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 현대·기아차는 6,700여명, 63개 부품업체는 약 2만5천명의 현지 일자리 창출

넷째, 국제적인 환경·안전 규제의 강화추세에 대응해 나가되,
산업발전과 조화롭게 규제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통신보안 등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환경·안전 규제 도입시 산업경쟁력과 통상전략 등을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매년 정례적인 파업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는
대립적인 노사갈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만 총 476시간의 파업으로
막대한 생산차질(24만6천대)과 수출피해(25억 5천만불)가
발생하였으며, 연관 부품업체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쟁력의 핵심인 노동의 생산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사관계 제도를 선진화하고,

노사간 상호 이해와 공감 확산을 통해
자율적인 협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 향후 조치계획 >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지난해말 어려운 수출여건에 맞서 "逆風長帆"을 화두로 제시하였는데,
우리 자동차산업의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맞바람을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기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돛을 높이 올립시다.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